이베로아메리카 제13권 1호[2011. 6] : 211~254

브라질의 언어와 민족 정체성, 그 경계의 틈새*

: 질베르또 프레이리(Gilberto Freyre)의 논의를 중심으로

임 두 빈**
(Im, Doo-Bin)

<Abstract>

Língua e Identidade Nacional no Brasil, e o Entre-Lugar : Focalizando Os Enunciados da Casa-Grande e Senzala como Espaço de Negociações Identitárias

O presente trabalho pretende explorar a relação entre a língua nacional e a construção da idenidade nacional no Brasil, materializando os enunciados da "*Casa-grande & Senzala*" de Gilberto Freyre e os discursos cruzados entre Freyre e romancistas. Atualmente, o português brasileiro é uma manifestação mais extensa e mais profunda da alma multiforme da nacionalidade brasileira como a língua é um tópico essencial no processo de constituição da nacionalidade, ao lado da geografia, da história e da étnia. Junto com o português brasileiro, como o idioma oficial do Brasil, tradições, ideias nacionais se difundiam por todos os habitantes dessa *comunidade imaginária.* Ao invés dos temas clássicos(como a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3)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E-mail: idb88@pufs.ac.kr

mestiçagem e a história da vida privada) de Gilberto Freyre, neste trabalho, discutimos as interpretações que Gilberto Freyre fez pelo prisma do luso-tropicalismo sobre a língua e a identidade nacional no Brasil, considerando o cruzamento da Casa-grande e da Senzala representadas na estrutura das obras dos romancistas brasileiros.

[Key Words: Gilberto Freyre/ Casa-Grande e Senzala/ Luso-Tropicalismo/ Identidade Nacional/ Comunidade Linguistica]

[주제어: 질베르또 프레이리/ 까자 그란지 이 쎈잘라/ 루주-트로피칼리즘/ 민족정체성/ 언어공동체]

Ⅰ. 들어가기

브라질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영토와 인구가 큰 나라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르투갈어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잘 알려졌다시피 포르투갈어는 브라질에서 자생한 토착 언어가 아니다. 브라질은 공식적으로 1500년 뻬드로 알바레스 까브랄[1](Pedro Álvares Cabral)에

1) 일반 출판의 경우, 포르투갈어의 외래어 표기를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외래어 표기법(2005)을 그대로 따라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래어 표기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선도해야 할 장소 또한 학술논문인 만큼 해당 분야 각 연구자들의 대안을 수용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래어 표기법이 절대적 기준을 지닌 고정불변의 규범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언어공동체의 여러 가지 제안과 사용을 통한 논의를 거쳐 하나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이며, 그러한 인식의 기저가 바로 본 연구가 상정하고 있는 언어의 '역동성'과 '복수성'을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억양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실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해 발견되어 베라 꾸루스(Vera cruz)의 땅으로 '호명'(interpelação)[2]되었던 장소이며, 포르투갈어는 식민 지배되었던 브라질에 강제적인 정책을 통해 이식된 언어이다.[3]

포르투갈의 브라질 식민지시대에 활동했던 1세대 컬럼니스트 뻬드로 지 마갈량이스 간다부(Pedro de Magalhães Gandavo)는 "브라질 해안가에 거주하는 인디오들의 말에 F, L, R 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고, 따라서 그들은 신앙(Fé)도, 법(Lei)도, 왕(Rei)도 없는 무질서한 세상에 살고 있다"[4] 라고 기술한 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 르네상스시대 이래 유럽학자들이 견지해 온 언어에 대한 경험주의적 태도, 즉 사고와 언어를 동일시했던 태도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당시 팽배했던 경험주의적 철학은 서구사회에서 자연과학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는데, 모든 언어를 그 자체로 고유한 구조의 발현으로 여기는 것 또한 경험주의적 철학을 바탕으로 당시 지식인들이 공유했던 기본적인 시각이었다. 극단적으로는 언어를 민족과 단순히 연결시키는 차원을 뛰어 넘어 유럽 민족이 강한 이유를 그들이 사용하는 민족어의 우수성에 연관시키고 원주민 언어와 같은 약소민족의 언어를 민족과 함께 소멸되어야 하는 것으로까지 사고되었다. 전술한 F, L, R에 얽힌 이야기도 서구지배 문화에 근거하여 원주민 문화를 폄하하고 타자의 문명수준을 평가하려는 오만함에 다름 아니었

2) 알튀세르가 강조한 개념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언어와 이미지로 전달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스스로 구축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3) 식민초기에는 주류 토착어인 과라니어(guarani)를 근간으로 한 일반어(língua geral)가 '링구아 프랑카'로서 의사소통을 담당했지만 1758년 포르투갈의 Marquês Pombal이 공표한 훈령에 의해 포르투갈어의 사용과 교육이 강제되었다.

4) Nantes, Bernard de. *Katecismo indico da língua Kariris, acrescentado de varias praticas doutrinaes, & moraes, adaptadas ao genio, & capacidade dos indios do Brasil, pelo padre Fr.Bernardo de nantes, capuchino, pregador & missionario apostolico; offerecido ao muy alto, e mui poderoso rey de Portugal Dom João V S. n. que Deos guarde*. Lisboa, Officina de Valentim da Costa Deslandes, Impressor de Sua Magestade, 1709. São Paulo, Coleção José Mindlin.

다. 따라서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 활동하던 지식인들도 그러한 세기적 패러다임의 영향 아래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었다.

이런 제국주의적 언어관은 개별언어와 민족사이의 절대적 필연성을 강조한 낭만주의적 언어관을 배타적으로 계승하면서 중세사회의 봉건적 질서에서 합리주의 세계로 가는 과도기 과정에서 발현되었다. 이는 중세사회의 자체 내부에서 배태된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변화의 여정 속에서 탄생된 것으로,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들의 언어를 차별화하고 세계의 언어를 문명화된 것과 미개한 것으로 파악하여 지배민족의 언어를 식민지 지역의 공용어로 삼는 구조였다(cf. 김하수 2008, 6-7).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둘러싼 외부적 요인(민족의 이동이나 분열, 다른 민족의 지배, 다른 언어와의 접촉 등)에서 출발하여 포르투갈어라는 동일성 위에 묶여있는 상이한 공동체 및 발화자들로부터 구현되는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억양과 현실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가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갈어를 언어내적 구조의 동일성에 기인한 포르투갈어(português)로 '호명'하지 않고 '브라질 포르투갈어'(português brasileiro)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동일한 언어체계로서의 포르투갈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공동체가 사용하는 '그 내부가 동질적인 기호체계가 아닌 언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때 "언어란 무릇 그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도구로 하여 정신적 발전 과정과 가치판단의 과정이 형성된다"(응구기와 씨옹오 2005, 220)라는 전언을 전제로 한다. 반면에, 포괄해서 '포르투갈어'라고 부르는 이면에는 수천만의 개인들이 포르투갈어(língua portuguesa)가 아닌 포르투갈어(português)라는 이름으로 모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가능성 때문이며, 또한 동시에 그 규범의 중심에 포

르투갈어(língua portuguesa)를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가능성 너머에 있는 언어(linguagem)[5]는 균질적이지 않다. 그 안에서 화자의 정체성과 발화의 맥락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내적, 외부적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6]

그 접근의 중심에는 브라질 민족정체성 연구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인정받는 질베르또 프레이리(Gilberto Freyre)의 '대저택과 노예숙사'(Casa grande & Senzala 1933)에서 드러나는 '발화'를 그 대상으로 놓고 있다. 볼로쉬노프가 강조했듯이 사회적 기호체로서 언어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언어적 미시 단위의 층위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소통을

---

5) 언어língua와 구분하여 linguagem을 '언어행위'로 국내에서 번역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linguagem은 lingua와 달리 '언어를 망라한 모든 의사소통에 동원되는 기호체계'에 해당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본 맥락에서는 '언어행위'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언어(linguagem)'이란 방식으로 대신 표현한다. 그러나 향후 이런 맥락에 적합한 우리말 용어를 학회활동 등을 통해 발화행위이론(teoria da enunciação)의 틀 안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6) 따라서 본 연구는 한 언어를 고찰함에 있어 어떠한 언어라도 동일한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그래서 언어가 가진 사회적 실천적 역할을 축소시키는 기능주의적 시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브라질 사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이에 관련된 대표적인 언어적 실천의 예 중 대표적인 것은 '브라질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자국어 콤플렉스 현상인데 이는 오판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 언중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는 브라질 사회가 아직 포르투갈어를 균질적인 동일한 기호체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4월14일 Folha지 기사에 "*Vídeo de Batman, Robin e Mulher Gato ensina português na Abin*"이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게재되었다. 브라질 국가정보기관인 Abin(Agência Brasileira de Inteligência)에서 비밀요원들의 국어(포르투갈어)교육을 위해 만든 연극에 대한 기사이다. Abin이 기관 내부 동영상 교육 자료로 활용했던 것인데 유투브를 통해 유출되면서 기사화되었다. 주된 내용은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캣우먼을 배트맨과 로빈이 체포하려고 하지만 포르투갈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캣우먼의 핀잔뿐만 아니라 그 두 인물이 틀린 포르투갈어를 말할 때마다 캣우먼이 인질들을 쏴 죽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브라질 국내에서 역시 자국의 국가정보기관을 통해 벌어진 이 어처구니없는 촌극에 어이없어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그만큼 역사적으로 유럽으로부터 이식된 포르투갈어에 대해 브라질이 털어내지 못하는 콤플렉스가 고스란히 드러난 하나의 극단적인 예로 이해할 수 있다.

구성하는 발화 층위에 있으며,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이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연구의 초점 또한 당연히 '발화'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발화'를 분석대상으로 삼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시각은 현실 속의 어떤 현상을 변증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7]

민족정체성을 다루는 연구들은 주로 스펙터클하고 공식적인 부분들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대저택과 노예숙사'는 새로운 집단의 정체성이 막 형성되는 시기에 일상생활과 사회적 상호작용, 식습관과 성 생활과 같이 사람들이 항상 경험하는 일상적 영역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브라질 민족형성의 그림을 제공해 주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일상의 것들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학자들의 관심 밖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질베르또 프레이리의 통찰력은 여러 시대를 앞서 간 것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와 민족정체성 형성의 관계에 주목하여 프레이리와 CG&S에 관한 이전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접근방식으로 식민시대에 브라질에서 사용된 포르투갈어를 민족형성과 그 작동기제에 대한 논의로 생산된 발화[8]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데 있다. 그 중에서 비록 서로 시대를 달리했지만, 모더니스트 질베르또 프레이리를 중심으로 브라질 낭만주의를 이끌었던 주제 지 알렝까르(José de Alencar)와 공통적으

---

7) 변증법적으로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현상을 고찰하는데 있어 다른 요소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종합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언어가 인간의 현실적인 의식인 이상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종합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회현실, 특히 일상적인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담론이나 실증주의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대신, 보다 구체적인 현실을 분석해 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8) 언어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휘부나 문법체계의 층위가 아니라 개인들의 사회적 소통을 구성하는 발화, 즉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에 있다고 본다. 언어의 본질적 기능이 소통에 있는 이상, 우리 연구의 초점 역시 발화에 맞춰져야 한다는 게 본 연구의 관점이다.

로 수렴되는 부분들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진행은 먼저 연구 목적의 제시와 함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언어와 민족정체성 사이에 놓인 연결고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분석 대상의 배경지식에 대한 역사적 대화를 통해 '대저택과 노예숙사'에서 드러나는 언어와 민족정체성과 관련된 발화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Ⅱ. '대저택과 노예숙사'를 통해 본 낭만주의자와 모더니스트의 접합점

본 연구는 전술한 바대로 브라질에 형성된 언어와 민족정체성에 대한 연구의 한 방편[9]으로 1930년대 질베르또 지 멜로 프레이리(Gilberto de Mello Freyre)의 대표작 "대저택과 노예숙사"(Casa-grande & senzala)[10]를 통해 드러나는 발화, 즉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언

9) 사실 이 문제는 브라질이 공화국 성립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고민해온 사안이다.

10) 질베르또 프레이리의 대표적인 저서 "Casa Grande & Senzala"(1933)의 한글표기는 최금좌(1999)이래 영역본의 번역인 "The Master and Slave"에 더 가까운 '주인과 노예'로 쓰여 왔다. 그러나 이는 양자 간의 대립을 우선시한 '지배와 피지배'라는 이분법적인 관계 설정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질베르또 프레이리가 피력하려 했던 바를 오히려 한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시각이다. 따라서, 원 저작의 제목대로 두 공간의 관계가 사회계층으로는 분리되었으나 혈연으로(혹은 잠재적인 혈연관계로)는 연결된 관계였듯이, 신분을 앞세운 이분법적 대립 관계가 아닌,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중층적으로 나타났던 공간을 표상하는 '대저택과 노예숙사'로 대신하는 것이 더 원작이 전달하려는 의도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최금좌(1999)는 Gilberto를 '질베르뚜'로, 김영철(2008)은 '질베르투'로 표기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질베르또'로 통일한다. 외래어 표기법에서 요구하는 '**지우**베르**투**'는 두 가지 점에서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지우-'는 현지음에 최대한 가까운 음가를 한글로 표시한 것이지만 장음을 표기하지 않는 원칙에는 어긋나는 표기이며 '-투'는 경음을 인정하지 않는 표기법 때문에 현지 음에 가까운 '뚜'나 '또'를 포기한 표기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어활동에 대한 현실, 즉 발화에 대한 언어적 성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 *'언어활동의 현실'은 언어행태들의 추상적인 체계도, 독립된 독백적 발화도, 그것을 수행하는 생리적인 행위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발화 혹은 여러 발화들 속에서 수행된 언어적 상호작용의 사회적 사건이다*(V.N. Voloshinov 2005, 163).

브라질 민족정체성의 문제는 브라질 사회에서조차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는 부분이다. 유럽지배에 있었던 식민지배의 역사와 상대적으로 짧은 근대국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브라질 사람들 당사자들에게도 자신의 문화와 민족 정체성의 문제는 항상 화두가 된다. 이처럼 브라질 민족정체성 문제가 브라질 내외에서 끊임없이 성찰되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형식화 할 이론화의 필요성이 줄곧 대두되었다.

질베르또 프레이리[11]는 현대 사회과학과 전통적인 문예사조 방법론과 결합시킨 사회분석의 혼성적인 접근법을 재현하였다. 그는 브라질 문화적 실체의 본연이 식민시기에 북동부에 자리 잡게 된 설탕 제당소(Engenho)를 보유한 사탕수수 대농장(fazenda)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대농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삶의 터전(Casa-grande & Senzala)이 점차적으로 브라질 전역으로 퍼져갔고, 더 나아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도시로까지 전파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브라질 민족주의자의 모습과, 동시에 포르투갈이 남긴 식민지배 유산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는 특히 식민지 시기 사탕수수 대농장을 근간으로 한 북동부 지역의 가부장제적인 전통과 체제에서 브라질 민족 형성의 기원을 찾았다. "대저택과 노예숙사"(Casa-grande &

11) 이후로 '프레이리'로 표기한다.

senzala)[12]를 통해 과거 식민시대와 19세기 동안 발생한 현실적인 일상의 삶과 역사적 사실들을 문학적으로 승화[13]시켰다.

그는 CG&S를 통해 브라질의 자화상을 바라보면서 당시 브라질에서 점차 늘어가는 혼혈현상을 당대의 시각이었던 퇴보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해석을 수행한 기원적인 학자로 기억된다. CG&S의 부제인 '가부장제적 경제 체제아래에서 브라질 가족의 형성'[14]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프레이리는 이 책을 통해 19세기 브라질 민족형성에 어떤 구성원들이 어떻게 참여되었는지, 외부에서 유입된 문화가 당시 브라질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음식, 언어, 옷, 종교와 애정의 표현과 성생활[15] 등의 다양한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기술하였다. 그는 특히 브라질이 식민시대에 형성되었던 가부장적인 가족관계와 혼혈(mestiçagem)을 통해 피부색이 다른 인종끼리 혈연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환경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프레이리는 CG&S의 제1장과 또 다른 그의 저작 "Um Brasileiro em Terras Portuguesas (1953)"[16]을 통해 포르투갈인들이 지녔던 열대지방에 특화된 유연한 적응력(소위, '루주 트로피칼리즘' Luso-tropicalismo)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

12) 이후 Casa Grande & Senzala를 CG&S로 표기함.

13) 이러한 글의 형태에 대해 브라질 향토주의 문학의 대가 주제 링스 두 헤고(José Lins do Rego)와의 만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최금좌(1999, 117)는 밝히고 있다.

14) 브라질 가부장적 사회 시스템의 역사에 대한 소개서로 *Casa grande & senzala*외에 *Sobrados e Mocambos*(1936)와 제1공화국을 배경으로 한 *Ordem e Progresso*(1959)를 들 수 있다(ibid., 117).

15) 이 부분에 있어 '음탕한 저작'이라는 브라질 우파 보수주의자들과 가톨릭교회의 비난을 받았고 한때는 브라질 정부가 금서 조치를 내린 적도 있다. 그 외에도 반국가적이고 반 가톨릭적이며 무정부적이자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좌파 지식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적이었는데 다르시 히베이루(Darcy Riberio)에 의해 그의 작품에 드러나는 일상사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16) "포르투갈 해외영토에서 한 브라질 사람이"

다:

> *인도나 아프리카보다 더 견고한 기반과 더 안정적인 조건 아래 식민사회를 조직된 브라질에서 그런 '적응력'이 결정적으로 증명될 것이다*(FREYRE 1980, 101).

> Essa facilidade de convivência deveria dar lugar a uma audácia cada vez maior à aventura de se desenvolverem em povos de cor, para neles e em gentes mestiças, e não apenas brancas, sobreviverem os melhores valores portugueses e cristãos num mundo menos racista que o atual" (FREYRE 1953, 15).

> *(...) 이런 공존의 용이성은 갈수록 더 유색인들이 드러내는 대범함에 자리를 내어줘야만 했으며, 현재(유럽세계)[17]보다 인종차별이 적은 세계(브라질)에서 백인들뿐만 아니라 유색인들과 혼혈인들에게 포르투갈인과 기독교인(가톨릭)들이 지닌 최상의 가치들이 살아남게 했다*(FREYRE 1953, 15).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리주의'를 채택했던 다른 식민지배 사회보다도 브라질에서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나 대립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용해될 수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인종적 민주주의' 가설은 브라질 역사 전반에 걸쳐, 특히 민족주의를 기치로 국가통합을 주도했던 바르가스 정권과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통치이데올로기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된 바 있다. 물론 포르투갈인 식민지배자의 계층적 우위와 노예제에 준거한 '비판 의식이 결여된 체제 순응주의'라는 혹독한 비판도 받지만, 민족 정체성을 다루는 저자와 연구자들이 주로 전통적이고 공식적인 것에 주목하여 항상 경험하는 일상 영역을 무시해 온 경향에 비춰보았을 때 1930년도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일상을 중심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17) 저자가 삽입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19세기 유럽과 브라질 지식인들이 '과학적'이라는 미명아래 우생학적 논리로 브라질 민족을 매몰시켰던 패배주의적 시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18] 프레이리가 보여준 연구 방법의 특징은 브라질 사회문제를 당대의 패러다임이었던 '인종적' 관점이 아닌 각 집단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과정에 의해 구성되는 '문화'라는 프리즘을 통한 접근이었다.[19] 한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의 글쓰기가 사회학자로서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받는 비판[20]은 그가 직시한 브라질 현실(다인종 혼혈)의 긍정적인 면을 '현재'의 것보다 '미래'의 것이기를 원하는 그의 염원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 염원을 담기 위해 엄밀한 과학성을 담보하는 사회과학적 글쓰기보다 '수필'형식의 글쓰기를 차용했다고 평가되고 있다(Araújo 1994, 최금좌(1999)에서 재인용).

국내에서 프레이리와 'CG&S를 다룬 선행연구는 한정적이다. 대표적인 연구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그 중에서 최금좌(1999; 2004)가 국내학계에 처음으로 프레이리와 그의 저서를 소개한 바 있다. 그는 "브라질 신화 "루조 트로피칼"의 창조자 질베르또 프레이리에 대한 80년대 이후의 재해석들이 브라질 사회사상사에 주는 의미"를 통해 저자의 성장배경과 작품세계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통해 그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 사회사상사 패러다임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다. 이승용(2007)은 '브라질 "인종적 민주주의"에 대한 재고'를 통해 브라질이 자국의 인종문제와 관련해서 자랑스레 내세우는 "인종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

18) 실제로 1930년대 당시 브라질에서 흑인문제와 혼혈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한 저작을 찾아보기 힘들다.
19) 따라서 프레이리에 있어 민족의 형성은 본원주의적이기 보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유학 당시 지도를 받았던 프란츠 보아스(Franz Boas)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20) Araújo(1994), Costa Lima(1989)

을 시도하였다. 그는 브라질의 인종정책을 통시적, 공시적으로 조명할 필요성을 역설[21]하면서 멘델의 유전법칙보다 네오-라마르크 유전법칙을 추종하는 백인화 정책과정을 통해 수립하려고 한 브라질의 '인종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브라질 흑인들이 정신적인 면에서도 과거의 기억을 부정하려는 것과 신체적으로도 혼혈을 통해 피부색을 더 밝게 만들려는 백인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만든 점을 지적하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브라질이 표방하고 재생산해 내는 인종적 민주주의의 숨은 실체의 근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위정자들 역시 사회 양극화 현상과 같은 브라질 사회문제의 숨겨진 근원문제를 호도하기 위한 통치이데올로기로써 '인종적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다고 비판하였다. 그 증거로 교육과 경제활동 부문에서 드러나는 지표를 제시하면서 혼혈문화에 따른 흑인들의 자의반타의반에 의한 정체성 상실을 통해 실재하는 인종차별을 은폐하거나 희석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영철(2008) 역시 프레이리를 브라질 사회가 스스로 찾으려 하는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질베르또 프레이리 다시 읽기"는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프레이리의 성장배경과 브라질 사회사상사속에 그의 자리매김을 재차 언급하고 있지만 2차 문헌분석을 통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 그는 '프레이리 다시 읽기'의 연구 목적으로 북동부지역의 독창성을 브라질을 대표하는 정체성으로 규정하려는(혹은 일반화의 오류)에 대한 의구심을 두고 모더니즘에 바탕을 둔 브라질성과 북동부의 지방성을 표상, 즉 브라질 민족형성의 대표성을 띤 것으로서의 '페르남부꾸성'을 대립적인 관점에

21) 그러나, 본문(이승용 2007, 118)에서 백인화 정책을 공시적인 관점,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백인화 정책은 통시적인 관점, 사회양극화 현상을 공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서 비교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저자는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성을 더 강조하는 모더니즘을 통한 '브라질성'에 비해 북동부 지역의 동질성만을 강조하는 프레이리의 논점을 문화적 다양성의 축소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히려 이분법적인 대립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실증주의와 모더니즘을 바탕으로 한 브라질성은 사실상 향토주의를 기반으로 한 북동부성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북동부성 역시 모더니즘이 표방하는 다양성을 부정하는 대립적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향토주의 대 모더니즘간의 대립적인 관점은 각각 '대농장'과 '도시'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국가형성에 있어 대립적 관점을 보인 '프레이리'와 '세르지오 부아르 끼 지 올란다'(Sérgio Buarque de Holanda)와의 비교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브라질 민족국가 형성에 있어 역사적 단계와 '가족'이란 관계가 수행한 역할에 대한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두 입장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에서 논외로 한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프레이리는 브라질의 민족의 형성과 그 미래를 논의하는 모더니스트들의 논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CG&S를 통해 북동부 엘리트 계층과 노예들의 사적인 삶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 해석의 과정에서 브라질에 이식되어 생성된 포르투갈어 변이체에 특별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인간 활동의 대부분이 언어를 통해 표상되고 수행되며 대부분의 사회현상이 언어적 상징체계로 표현되어 유통된다는 차원에서 브라질의 민족정체성 형성의 과정속의 언어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민시대에 브라질에서 사용된 포르투갈어를 민족형성과 그 작동기제에 대한 논의로 생산된 발화들을 살펴봄에 있어 비록 서로 시대를 달리했지만, 모더니스트 질베르또

프레이리를 중심으로 브라질 낭만주의를 이끌었던 주제 지 알렝까르(José de Alencar)와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부분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브라질 민족성에 관한 논의에서 브라질 낭만주의를 이끈 알렝까르(1829-1877)와 모더니스트인 프레이리(1900-1987)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개별적으로 수행되었고, 시공간을 넘어 그 두 사람의 주장을 연결시킨 연구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22] 대표적인 공통 요소들은 "대농장주와 노예들 사이의 형성된 조화로운 관계", "포르투갈 사람이 아닌 브라질에 사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언어 표현방식에 대한 변호", "안정적인 식민지 사회를 구성하는 체제로써의 가부장 체제"를 들 수 있다. 그중에서 특히, 두 사람의 공통의 관심사 중심에 바로 '언어에 대한 성찰'이 공통분모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식민지 사회에서 형성된 '가부장제적 관계'(relação patriarcal)에서 브라질 포르투갈어에 발생한 변이와의 관계 모색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가부장제적 관계는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서양이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가장 먼저 도입한 통치체계이기도 하다. 수적으로 소수자인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시작한 작업은 피지배자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하는 작업이었다. 당시 유럽에서 창궐했던 문화진화론적 관점에 사로잡혀 '차별'과 '구별 짓기'를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상징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가부장제적 주종관계가 바로 그 기반이었다. 이 가부장제적 주종관계는 군대식 위계질서와 복종을 바탕으로 하는 군주와 식민의 관계를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 군주와 신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대변된다. 따라서 이 위계질서를 부정하면

22) 1955년 브라질 교육문화부에서 발간한 "Os Cadernos de Cultura" 79호에 실린 "Reinterpretando Jose de Alencar(1955)"에서 프레이리가 알렝까르의 소설 안에서 CG&S의 원형을 재현시켜 분석한 바 있다.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며 정상적인 '부자지간'에 이루어지듯이 '제재'가 따르게 되는 논리로 이어진다. 가부장제적 주종관계를 드러내는 또 다른 하나의 문화적 상징은 피식민지에 대한 '여성성'과 '유아성'의 부여이다. 흔히 유럽인의 관점으로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와 같이 문명화가 떨어진 지역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자연 경관이나 그 지역이 품고 있는 원시성을 예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식민지가 가진 원형질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아버지란 존재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정의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유럽인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었다. CG&S에서 드러나는 가부장제적 주종관계 역시 가족관계라는 문화적 상징을 통해 드러난다. 프레이리는 알렝까르의 작품들[23] 속에서 자신이 주장한 '열대주의'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확신하고 있었다:

> *이번에는 내가 루주-트로피칼리즘에서 브라질 문화를 조명하듯이, 알렝까르의 문학세계를 사로잡고 있고 브라질 문화의 그 어떠한 재해석에 대한 연구의 매력적인 대상인 '열대주의'를 강조해 보려고 한다*(FREYRE 1955, 03).

프레이리는 알렝까르의 작품들을 분석함에 있어 그가 브라질 문화를 독립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있어 포르투갈의 영향력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 작품들 속에 '열대주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을 통해 브라질 문화와 포르투갈과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알렝까르와 프레이리 두 사람의 발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가부장적 체제에 대한 논의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23) 관련된 대표적인 작품으로 'O Guarani(1857)', 'O Tronco do Ipê(1871)'를 꼽을 수 있고, Casa-grande & Senzala 방식의 이분법적 구도는 "O Tronco do Ipê"(1871)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알렝까르의 대표작 '*O Guarani*'에서 드러나는 가부장제적 사회의 모습은 언제나 남성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디오 Peri조차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을 갖춘 인물로 등장한다. 그리고 항상 그 남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성인물을 등장시킨다. 그리고 그의 소설들, 특히 '*O Tronco do Ipê*'에서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가 두드러지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며 프레이리의 대저택(Casa grande)와 노예숙사(Senzala)에 상응하는 두 가지의 블록이 등장한다. 비록 흑인들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백인들과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회적인 블록 사이의 구분은 단순히 공간적인 구분된 문제가 아니라 '주인마님과 하녀들' 간의 관계로까지 이어졌다.

Dicionário de Figuras de Mitos Literários das Américas(PEREIRA 2007, 84)에서 "Casa-grande" 항목을 찾아보면 "농장주"(senhores)들을 사법부의 사람들이나 정치인들보다 더 특권을 지닌 사람들로 정의내리면서 많은 수의 도망친 노예들이 자신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농장주들을 찾아 갔다"고 전하고 있다. 사법부나 관청이 아닌 농장주들이 당시 기준으로 도망자들이나 범죄자를 보호해줬다는 사실은 당시 브라질 식민초기시대에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특권을 쥔 사람과 그에 의존하는 사람 간의 관계가 모든 사회적 관계를 전부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모여든 흑인 노예 도망자, 인디오, 백인 범죄자들은 농장주들 아래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가족처럼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로써 브라질 식민사회의 사회적 관계가 이전처럼 교회 중심이 아닌 가부장제적 사회구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갔다고 프레이리는 주장했다(Cândido 2008, 2).

비록 식민화 과정이 현실보다 덜 폭력적으로 미화되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이리가 주장한 '유연성'(placiticidade)를 핵으로 한 "열대주

의" 테제를 알렝까르의 작품들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브라질 사회의 재구조화와 '대저택'과 '노예숙사' 사이를 오가며 이뤄진 성적인 관계의 결과로 빚어진 새로운 인종의 출현은 브라질 민족의 형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당수의 폭력적인 상황들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동되었다. 이는 기존의 삶의 방식에 대한 위협이 감지될 때 문제로 등장하는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인데, 이 문화 정체성이 폭력과 같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개념과 폐쇄성을 완화시키는 열린 정체성 개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등장한 것이 '열대주의'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열대주의 관점을 통한 알렝까르 작품에 대한 분석 시도는 바로 복잡하고 그 스펙트럼이 넓은 브라질 민족형성 과정을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알렝까르 작품에 대한 분석에 동원된 "열대주의" 테제는 알렝까르의 소설들 속에 등장하는 "아메리카성"(americanidade), 즉 브라질 민족형성의 긴 여정을 해석하려는 의도를 고민하기 위해 필요한 기제였다고 볼 수 있다.

1808년,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으로 인해 리오데자네이루로 천도한 포르투갈 왕실로 인해 브라질은 식민지에서 군주제 국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포르투갈 왕실의 13년간에 걸친 리오 천도로 인해 브라질 땅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일어났고, 궁극적으로 1822년 독립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세기에 개항을 한 리오데자네이루를 통해 상업적 교역과 외국인들의 유입이 두드러지게 높아졌고, 왕실이 있었던 리오데자네이루시는 당시 브라질 땅에서 유럽 문화를 새로이 재현하려는 사람들로 북적되는 코스모폴리탄의 역할을 했다. 거기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흥 부르조아 계층의 부상이 확산되었다. 당시 리오데자네이루를 제외한 다른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삶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근대화'는 수도 리오데자네이루에 국한된 것이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엘리트들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뻬레이라 지 께이로스(Pereira de Queiroz, 1973)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부르조아 계층 삶의 방식의 확산이 일어난 시점을 그곳에서 산업화가 일어나기 훨씬 전인 1820년부터라고 한다. 이런 새로운 방식의 삶의 형태는 도시 인구들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역시 차이를 불러 일으켰는데, 가장 주된 이유로 상층부 계층들이 토착민이나 혼혈인들과 자신들을 차별 짓기 위한 상징으로 자신들의 삶에 우아하고 유럽모방적인 삶의 형태를 채택했다(Oro 2008, 183).

> *도시 거주민들의 가장 큰 소망은 직접적으로 유럽인과의 접촉을 통하거나 유학이나 또 다른 목적으로 유럽을 방문했던 브라질 사람들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는 맛을 본 유럽을 느껴보는 것이었다*(Gardner, 5).[24]

브라질 지성사는 근대성과 관련된 문제들에 항상 동요해 왔다. 브라질은 그 기원에 있어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민족'과 '근대성'이 동시에 발현되었다고 본다(Oro, 182). 그리고 브라질 문화는 일정 기간 동안 엘리트 계층에 의해 브라질이 추구해야 하는 근대성의 모델로써 유럽문화(최근에는 미국문화에)에 자신의 자리를 내주면서 뿌리 깊숙이 저평가 받아왔다. 동시에 근대화를 명분으로 유럽의 새로운 사상들을 수입하는 경향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그 사상들을 새로운 토양, 즉 브라질땅에 토착화시키려는 의도를 뜻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성(modernidade)은 간혹 현대성(contemporaneidade)과 혼동이 되기도

---

24) GARDNER, George(1942), *Viagens no Brasil, principalmente nas províncias do norte e nos distritos do ouro e do diamante durante os anos 1836-1841, São Paulo: Nacional.* Oro(2008, 183)에서 재인용

한다. 유럽모방적인 삶의 형태에 대한 역방향은 마찬가지로 엘리트 계층에 의해 그들이 더 '브라질스럽다'고 가치화하려는 곳에서 일어났다. 이런 경향은 19세기 후반 주로 문학작품들을 통해 표명되었다. 주로 인디오와 전원생활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작업들이었는데 소재는 비록 브라질 민족적이라 할 수 있어도 그 소재를 다루는 방식은 여전히 유럽에서 이식된 낭만주의 사조에 기인한 것이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브라질 낭만주의 시기와 모더니즘 운동[25]에 관련하여 이 두 가지 사조 모두가 단순하게 그 당시의 문학적 혹은 미학적인 운동에 그치지 말고 사상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을 근간으로 하는 움직임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알렝까르가 남긴 텍스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문학적인 요소보다 그 안에 재현되어 있는 브라질 초기 사회의 사회상이라고 볼 수 있다.

상기의 두 사람이 각자의 저작을 통해 집단정체성과 관련짓는 일종의 언어학적 평가를 전개했다는 부분은 사실 그리 특별한 내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에서 인종적 혹은 종족적 정체성은 식민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이어 온 혼란스럽고 복잡다기한 문제였고 근대국가를 이루면서 공동체 통합과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도구로써 언어를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혼종성과 이종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브라질 포르투갈어[26]는 브라질만의 사회적, 언어적 역동성을 파악할 수

---

25) 낭만주의 시기는 1836-1870년으로 분류되며, 언어적 낭만주의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사상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언어와 민족 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여 언어의 민족적 공통성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았으며 개별민족어의 공통성 확보와 표준화 과정에 공적을 남겼다(김하수, 2008). 낭만주의적 언어관을 배타적으로 계승할 경우, 민족주의의 왜곡된 모습인 국수주의나 제국주의로 전환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모더니즘 시기는 대략 1922-1945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26) 포르투갈어 어휘는 약 30만 개로 추산되며 Aurélio사전은 16만개 어휘를, Houaiss 사전은 22만개의 어휘를 수록하고 있다.

있는 하나의 장(場)[27]으로서 기능하며, 의식과 사회생활의 모든 요소들 가운데서 다른 무엇보다도 존재론적으로 우선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인종과 언어 사이의 관계는 서론에서 전술했다시피 당시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언어, 즉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가 정착되어 가는 시기에 법적으로 강제되어 이식된 포르투갈어를 연구했던 초기 세대 학자들에게 있어 흥미로운 주제였다. 그들이 언어에 대해 지닌 시각은 독립적인 객관세계를 반영하는 거울로써의 재현주의가 아니라 화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반재현주의적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28]

알렝까르와 같은 19세기 낭만주의자들과 프레이리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브라질 포르투갈어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첫째로 인디오들과 아프리카 흑인노예들 그리고 브라질 현지에서 출생한 자들로부터 받은 복합유산으로써 '부드러움', 한 박자를 늘린 듯한 '느림', 소리의 '울림', '풍성함' 또는 '타락'과 같은 항목들로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포르투갈어의 정체성을 특징지으려 한 점이다(Borba, 78). 두 번째는 유럽 포르투갈어와의 관계에서 반복되어 조명된 브라질 포르투갈어에 관한 것으로,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놓였던 변증법적 관계이다. 유럽에서 건너 온 포르투갈어가 브라질에서 공식어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를 매개로 한 문명화나 개화를 상징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억압자로서 기능도 겸했다는 얘기이다.

---

27) 즉, 사회질서를 재생산해내는 일종의 지배의 매개체이며, 종교처럼 정신구조와 사회구조를 매개하는 핵심적인 상징체계의 망을 의미.

28) 재현주의(또는 표상주의)는 진리나 지식의 문제를 사유나 정신의 문제가 아닌 언어의 문제로 전이된 것을 가리킨다. 비트겐슈타인의 말대로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로 받아들이는 '지시의 고정성'을 말한다. 반재현주의는 진리로써의 진술들 속에 사실(matter of fact)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적 항목도 비언어적 항목들을 표상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자연 외부대상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는다.

Ⅲ. 민족어와 민족정체성과의 관계

언어는 인간이 집단적 삶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매체라고 볼 때, 대표적인 언어사용 집단으로 '민족'이라는 집단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 그만큼 언어와 민족 간의 관계는 심정적으로 직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짙지만 브라질과 같이 외부로부터 지배를 받고 그 지배집단의 언어가 그대로 이식된 곳은 '민족'이나 '민족어'개념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우리와는 다를 것이다. 이처럼 '민족'이나 '민족어'와 같은 개념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이 겪은 역사적 질곡에 따라 다성성(多聖性)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언어는 개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보는 것보다 그 언어는 공유하는 사회의 구조와 그 사회의 집단정체성을 볼 때만이 그 존재와 특징이 제대로 드러나며, 일반적으로 특정한 개별언어의 사용 공동체를 떠올리면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피쉬만에 따르면, 언어공동체란 그 모든 구성원이 적어도 하나의 언어를 공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언어의 적합한 사용을 위한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했다(이병혁 1986, 41).

'네이션'과 같은 근대 지식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개념들은 서구에서 8-9세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졌고 그 과정은 근대로의 전환이라는 사회역사적 상황과 직결되었다. 근대 학문의 출현과 대학제도의 설립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개념군을 만들어 내고 체계화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박명규 2009, 35). 개념을 창출하고 전파하는 힘을 지녔던 서구사회에 비해 비서구 사회는 근대지식을 문명의 형태로 수용하기 바빴다

(ibid., 36). 그러나 개념의 기원이 서로 다르고 내포된 시간성에 차이가 있어 개념의 역사, 의미의 중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간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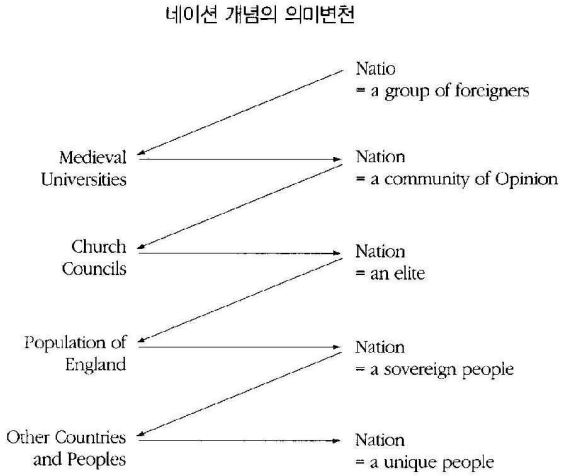
서구사회에서 '네이션'은 일반적으로 주권을 지닌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을 가리킨다.[29] 그래서 네이션은 단순히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총합에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조상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까지 포괄하는 역사적 영속성을 지닌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션은 정신에 의존하며 각 구성원들을 묶어주는 감정공동체이기도 하다.

사실, 개념 정의에 있어서 서구사회에서 넘어온 '네이션'이 '민족'인지, '국민'인지 경계가 모호하다. 박명규(2009)는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에서 유럽의 근대문명이 앞서 이룩한 정치발전과 함께 나타난 '네이션'을 우리말의 '국민'이라는 개념과 동의어로 간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바로 18세기 이래 유럽에서 근대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정착되고 구성된 근대적인 정치주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ibid., 52). 통시적으로 볼 때, 언어와 민족 간의 관계에서 낭만주의 사조는 민족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사상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언어의 민족사이의 절대적인 필연성을 강조하고 언어의 민족적 공통성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아 개별민족어의 공통성을 확보하고 표준화 과정을 남기는 공적을 남겨준 것이다. 낭만적 민족주의 시대에는 민족을 본원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민족의 기원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근대 민족 기획에서도 민족이 산업적 진보든 기

29) 프랑스 혁명을 통해 '네이션'의 주권성을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원리로 명시했다. 프랑스 혁명은 주권의 개념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주권을 공유한 집합체를 '네이션'이라는 범주로 확장함으로써 중세적 신분을 타파하고 근대국가의 구성원리를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cf. 박명규, 63-64)).

술적 진보든 혹은 사회적 진보든 간에 언제나 생성의 과정 속에 있다는 시간관념이 있었다.

<표1> 네이션 개념의 의미변천30)



출처: Liah Greenfeld(1992),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p.9.

이처럼 민족과 같은 집단정체성의 연구에 있어 전통적으로 본질주의

30) 라틴어 어원 'natio'는 로마에서 로마 시민보다는 신분이 낮은, 같은 지역 출신의 외국인을 가리켰다고 한다. 파리대학에는 네 개의 'nation'이 있었는데 여기서 'nation'은 출신자와 결합하여 일종의 'national identity'와 유사한 의미를 가졌지만 어디까지나 중세대학의 학생이라는 공통점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단순한 지역성을 넘어서 공통의 의식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의견공동체의 의미를 띠었다고 한다. 13세기 이후 유럽의 공의회에서 nation은 의견공동체에서 '신자공동체'의 대표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고, 16세기 영국에서 일반주민을 포괄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점차 'people'과 유사한 말이 되었다. 그린펠트(1992)는 이 시기 영국에서의 의미 전환이 근대적 의미의 'nation' 개념이 처음 출현하게 되는 계기였다고 보고 있다.

혹은 본원주의(essencialismo)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o)간의 대립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즉, 쉽게 변하지 않고 원래 존재하는 카테고리로서와 변화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유동적인 카테고리로의 인식이 변주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본질주의적인 인식은 학문적으로, 특히 사회과학에서 부정되는 경향이 짙다. '네이션'이란 '본질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생성되고 발전함과 동시에 해체되고 소멸될 수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구성주의적'라는 것이다. 이처럼 본질주의는 모든 정체성이 권력의 주체들과 문화적 코드에 의해 만들어지고 재구성되고 재정의되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상호작용이론'의 영향을 받은 구성주의에게 사실상 자리를 내주었다. 그럼으로 해서 '민족'을 정서적인 것이 아닌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여전히 '민족'이란 단위를 실존하며 변하지 않는 근원주의적인 단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구성주의적 관점은 일단 구성된 정체성이 다시 본질주의적인 특징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없다는 점에서 맹점을 가진다. 이와 관련해서 부르디외(1991, 223-225)는 집단정체성을 예로 들면서 권력 집단의 다툼을 통해서 사회집단(카테고리)이 정의되고 그 정의는 인간의 사유 구조 속에 고착화되게 된다. 그러한 작동방식을 통해서 카테고리는 스스로의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사유는 기존에 존재하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갖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종일/김은정 2008, 192).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민족의 실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그 '민족'이라는 집단을 정의하고 만들려는 과정을 언어문제와 함께 '민족의식'의 형성 문제로 바라보려는 것이다.

세계사적 의미에서 근대 민족주의의 발현은 18세기 후반,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근대 민족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

대에는 항상 민족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양한 지방 방언을 단일한 언어 규범으로 엮어서 단일 국가의 단일 국민에게 단일한 언어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지방 단위의 소규모 시장을 넘어선 국가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신흥 시민세력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민족의식이 발현되는데 있어 언어문제는 중요하지만 절대적 조건은 아니었다.[31] 오히려 신흥시민 세력 같은 사회주도 세력의 이해관계와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념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언어공동체의 구성과 성격을 분석할 수 있는 첩경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집단의 동질성과 응집력, 소속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언어공동체집단을 중심으로 민족정체성을 구성하는 집단의 정체성 연구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언어 사용과 태도에 관한 고찰인데, 이는 언어가 정체성의 구축과 강화에 있어 강력하면서도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해 그 집단의 정체성을 외현하기 때문이다(cf. 양철준, 58). 일반적으로 언어공동체의 속성이란 동일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용되는 언어종류의 수와는 관계없이 의사소통의 능력과 관련하여 상징적 통합이나 의사소통의 심도로 부각되는 공동체로 정의된다(이병혁 1986, 41)

정체성의 구성과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근원주의적 관점과 비본질주위적 관점이 바로 그것인데, 본질주의 관점은 '생물학적'이라는 수식이 전제되어 있는 관점으로써 원초적인 힘에 의

31) 훔볼트(Humboldt)와 같이 언어와 민족의식과의 필연적 관계에 대한 강조는 낭만주의적 요소와 함께 독립된 민족국가의 건설과 새로운 사회의 수립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언어의 우열과 민족의 우열을 연관시키는 연구로까지 전개되기도 하였다.

해 형성된 본질적이고 고정불변하며 결정론적 성격을 지닌 실체로서 통시적 역사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역사나 문화에 선행한다는 관점이다.[32] 이 근원주의적 시각은 정체성의 다중성과 유동성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게 전달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사실 사회적 관계의 역동성에 의해 정체성이 변화하여 중층적인 성격을 띨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그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상하기도 한다(양철준, 58). 그에 비해 비근원주의적 관점은 흔히 사회적 구성주의(construcionismo social)로 대변되는데 인간의 부단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중시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정체성이란 고정불변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단히 변화하는 역동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cf. Cohen 1978, 23). 그러나 본질적인 관점이나 비본질적인 관점이나 정체성의 형성이나 그 형성된 정체성의 외면화에 있어 '특정의 언어나 형태들'(표준어, 규범어, 방언 등)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이견은 없어 보인다.[33] 인간은 기호적 수단이자 상징체계인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규정짓기도 하고 타인에 의해 규정되는 경험을 부단히 경험하는 것이다.

상기의 이런 관점은 언어상대주의적[34] 관점을 넘어 언어결정론적[35] 관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역사적 사건들이나 정치적, 경제적 구조의 변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되, '형성된 정체성'이 '언어'라는 상호 작용력을 지닌 수단을 통해 구체화되며 언어를 통해 강화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

32) 피에르 반 덴 베르허(Pierre L. van den Berghea)의 사회생물학적 시각

33) "Identity is defined as the linguistic construction of membership in one or more social groups or categories" (Kroskrity, 2000).

34) 언어의 차이가 화자들의 생각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35) 인간의 사고는 그들의 언어에 의해 사용가능해진 범주들로 그 형태가 결정된다.

남미 식민지들의 독립 시기는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태동한 시기와 일치한다. 실제로 남미 식민지들의 독립을 추동한 이데올로기 역시 유럽으로 들어온 급진 사상으로 환원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어 형성 문제에 있어서 브라질은 19세기 영토 경계선 분할과 함께 작동한 유럽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런 이유로 몇몇의 브라질 지식인들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유럽민족주의로부터 치환된 브라질의 독립과 민족주의적 테마들을 마냥 찬미하지는 않았다. 프레이리 역시 그런 한 지식인에 속하며 앞 장에서 강조했다시피 '유연성 있는 적응력'(placiticidade)를 기반으로 한 포르투갈인과 브라질의 지방성이 결합된 전통으로의 복귀를 루주-트로피칼리즘(Luso-Tropicalismo)란 이름 아래 주장한 것이다.

1822년 브라질 독립을 달성한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민족어'(Língua nacional)는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론적, 문학적 그리고 정치적 사상을 침전시키는 전도체 역할을 하는 요소들 중의 하나였는데, 당시 낭만주의를 통해 브라질 언어현실에 대한 인식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알렝까르를 위시한 당시의 지식인들[36]은 그 문제를 두 가지 상이한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Abreu 2002, 85). Pinto(1978)는 그 접근방식을 '정통주의적 관점'과 '변증법적 관점'으로 나누고 있다. '정통주의' 혹은 '순혈주의'적 관점은 유럽 포르투갈어를 소위 '개화된' 집단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더 효과적이고 명망이 있는 수단으로써 간주하는 것으로 '교양, 격식 있는 언어'(linguagem culto)로부터 벗어나는 그 어떤 언어적 탈선을 허용하지 않으며 문법 법규의 준수[37]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증법적' 혹은 '분리주의' 관점은 이미 '브라질스러움'(brasilidade)과 '대

36) 대표적으로 José Bonifácio, Joaquim Nabuco, Varnhagen, José de Alencar를 들 수 있다.

37) 그리스의 미메시스, 즉 고전주의적 시각을 옹호하는 것으로 이는 '민족'이나 '민족어'같은 개념이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근원주의적이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중에서 널리 통용되는 표현방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순혈주의가 강조하는 형식주의, 학문 중심적 입장에 상반되는 노선을 펼치고 있었다. 여기서 변증법적 관점이란 주어진 현상의 고찰에 있어 그것이 다른 것들과 맺는 관계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종합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수반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실천적인 방향성의 정립과 맞물린다.[38]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노선들 사이에서도 공통점은 발견된다. 바로 그것은 '브라질 사람들이 포르투갈어를 틀리게 사용한다'는 당대 포르투갈 작가들의 비판을 모두 거부했다는 점이다. 그러한 논쟁은 '우리'라는 집단의 귀속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남과 차별되는 독자적인 것이라는 존재감과 고유한 토착의 것을 구체화하고 가질 수 있는 '개인적 주관주의'를 주장할 권리를 목표로 했던 것이다(De Luca 1999, 244). 사실상, 그 논쟁은 '민족적 특성'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것이었다. 왜냐하면, '언어'를 통해 민족성을 구성하려는 욕구를 가리키는 요소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갈어의 문제를 브라질 사람들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고, 동시에 이미 더 진정한 브라질 사람들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라고 표현했다(Oro 2008, 44).

그러나 민족어에 관한 발화들 속에서 되풀이되어 관찰되는 점은 식민지배자의 언어에서 역시 항상 인식되는 문제의 사안이다. 그 요소들 외에도, 반복되어 나타나는 요소는 새로운 것의 불가피성과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욕구 사이의 교차로였다. 민족주의자의 입장을 지키면서 그러나 유럽사회에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던 알렝까르는 브라질을

38) 사실 마르크스 변증법이라고 하면 철 지난 이야기로 치부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1989년 현실 사회주의 붕괴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이상 정치적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 위축되지 않고 마르크스 사상을 있는 그대로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도그마에 빠질 가능성을 줄이는 긍정적 계기가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구별되는, 그러나 고립되지 않지 않은 요소들의 융합의 결과인 브라질식 포르투갈어 사용을, 즉 Coutinho(1965, 8)가 강조한 바와 같이 인종적, 사회적, 언어적, 문학적, 역사적 복합체로서 '신대륙화(Americanização) 된' 그 어떤 새로운 언어로 받아들였다.

II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렝까르와 프레이리의 논점 중에서 서로 유사한 요소들은 가부장제를 비롯하여 '노예제도'와 '민족어 특성들'에 관련된 문제였다. 다음의 발화는 우리가 이번 연구에서 보여주고 싶은 대표성을 재현하고 있다. 언어와 노예제도가 연관된 부분은 바로 어휘부와 발음에 관련된 것이다.[39]

> *포르투갈 사람들은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sinhá[40] 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마치 조소하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미국사람들이 신조어로 만든 영어를 접한 영국 사람들의 반응도 대동소이할 것이다. 우리말의 특징을 띤 단어가 이것인가 아닌가? 우리말의 정서에 반하는 어떤 음절이 있는가? (…) sinhá 와 iaiá 말고도 jacá, fubá, patiguá, patuá, aeaçá, aluá, samburá, xará처럼 –á로 끝나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일부는 아프리카에서, 대부분의 것은 인디오어에 근원을 가진 말들을 우리 민족의 뿌리로 받아들인 예로 볼 수 있다*(FREYRE, 133).

> *(…) 한번 통용된 단어는 세대를 거쳐 전승이 되었고 senhora란 말보다 sinhá가 일반화되었다. (…) sinhá라는 말은 유럽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유럽에서는 아직 가사 일을 돕는 노예가 드물었고 브라질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 즉 '대농장주인'의 관대함과 '노예'의 신실함이 전하는 의미를 sinhá라는 기호를 통해 공*

39) 그래서 언어연구에 대한 비전문가로 부름.

40) 위의 인용문에서 ***sinhá***라는 낱말은 식민 시대부터 유래된 것으로 'senhora'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축약 표현이다. 유럽에서 사용하지 않은 브라질식 포르투갈어 표현인데 노예들이 농장주의 딸을 가리킬 때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브라질 식민 시대에 탄생한 '삶의 언어'에 해당한다.

> *유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브라질에서 노예들이 주인 딸을 'sweet'라고 부르는 행위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FREYRE, 134).

상기의 예들은 브라질에서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한 가부장제적 사회관계에 대한 숭배가 지배적이었던 당시의 브라질 내 사회를 프리즘을 통해 본 언어적 현상으로 분석된다. CG&S에서 전하는 주요 논쟁거리중의 하나는 브라질에서 당시 브라질에서 사용하던 포르투갈어를 변하게 만든 요인을 노예제도의 철폐(1888)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와 민족정체성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어란 동일한 언어 공동체의 상이한 구성원들이 서로간의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그리고 그 자체로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호 체계라는 자명한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관점은 그 동일한 언어 체계를 다양한 개인이나 상이한 집단들, 계층들, 계급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회상황에서 강조 되어야 할 것은 개인적 주관주의에 치우친 '민족어'나 '추상적 객관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공통어'의 단일성이 아니라 오히려 상이한 발화 주체들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대립이라는 것이다. 언어의 역사적인 변화는 점진적이고 사실상 언어들 사이의 교차는 프레이리가 보여준 것과 같은 낙관적인 관점으로, 혹은 스탈린 언어학에서 주장한 것처럼 새로운 언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어'가 승자독식을 했듯이 어느 한 언어의 승리로 끝이 난다.

한 언어공동체 안에서는 구성된 민족의 성원들은 동일한 언어 기호를 사용하는 민주적이면서 평등한 관계에 있지만, 그 가치중립적으로 보이는 언어체계에 자신의 고유한 이데올로기적 이해관계를 투영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다른 그들의 차이점을 연속적으로 해석하고 재해석해야 하는 반대항과 '타자'를 구축하는 정체성의 문

제와 직면한다. 따라서 동일한 언어 기호의 이데올로기적 사용과 그 효과에 있어 물질적 억압과 착취, 잉여가치의 획득을 위한 경쟁 등을 반영하는 상이한 이데올로기적 목소리들은 필연적으로 상충적이다. 우리의 주변 일상에서 흔한 언어적 소통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현대의 여러 가지 이론모형에서 추상적으로 상정하고 있듯이 상호대칭적인 것도 평등한 것도 아니라 지배의 억압의 관계들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유럽으로부터 이식되었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언어공동체를 이루어 브라질에서 사용되고 있는 포르투갈어를 동일한 언어체계를 사용하지만 상이한 언어공동체(포르투갈)가 사용하는 규범을 기준으로 '오염된 언어', '교정 받아야 하는 언어'라고 평가하는 내외부의 시각 또한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오는 이데올로기적 기만과 편견의 극복, 노골적으로 의도되었든, 교묘하게 상징적으로 조작되었든 간에 일종의 권위적 담론에 해당한다. 이에 근거하는 억압적 질서의 전복과 새로운 질서의 기획, 그리고 투명하면서 풍부한 소통적 발현에 대한 지향은 이론적인 논쟁거리가 아닌 사회실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Ⅳ. '대저택과 노예숙사'(Casa-grande & Senzala)와 브라질 포르투갈어

브라질에서 사용하던 포르투갈어를 '설탕을 바른 포르투갈어'라고 표현하던 시기가 있었다. 이 표현 안에는 말하는 방식과 브라질, 포르투갈 그리고 아프리카의 몇몇 지역들의 역사가 가진 중요한 순간들에 대한 참조사항들이 응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표현은 프레이리가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다. 1824년에 이미 뻬드로 브랑까(Pedra Branca)

자작이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갈어를 음성학적 측면에서 '더 달콤하게', '더 흥이 겹게' 들리고 어휘차원에서는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Pinto 1978, 15). 당시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설탕이 포르투갈의 무역과 식민지 브라질의 경제를 보장해 주는 주요 산품이었기 때문에 노예무역은 아프리카-아메리카-포르투갈을 잇는 삼각무역의 중요한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북동부 지역의 사탕수수 농장가의 일원이기도 했던 질베르또 프레이리는 어느 다른 어떤 지식인들보다 브라질이 지닌 사회구조를 더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1939년 출간한 Açucar, uma sociologia do doce[41]에서 잘 드러나 있다(BORBA 2007, 81).

프레이리가 상기의 책에서 남긴 발화들을 살펴보면 텍스트 자체뿐만 아니라 담론차원에서도 풍부함을 제공해 주는 요소들이 있다. 설탕은 브라질 식민시기에 그 사회적 집단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언어사용에 변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의 주요 매개체로써 작동했고 그 결과, 설탕과 흑인사이의 불가분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

> *항상 흑인과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없는 '설탕'은 그로부터 떼어내 생각할 수 없는 브라질 문명화가 지닌 브라질 사람들 삶의 여러 모습들을 달콤함으로 절였다. 설탕은 우리(브라질인들에게)에게 수줍은 multatas, **sinhás**를 제공해 주었다 (…)* (FREYRE 1939, 56)[42].

---

41) <설탕, 그 달콤함의 사회학>: 프레이리가 1932년 초판을 낸 책으로 브라질 북동부 지역 전통 가정에서 만드는 케이크나 단 것 같은 전통적인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레시피를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노예제도가 존재했던 식민시대에 설탕을 중심 매개로 문화와 요리법의 접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다.

42) "O açuar, que se fez acompanhar sempre do negro, adoçou tantos aspectos da vida brasileira que não se pode separar dele a civilização nacional. Deu-nos as sinhás de engenho. As mulatas dengosas (...)."

이처럼 언어를 통해 도출된 사회집단의 표상들이 '브라질주의'(brasileirismo)를 생산해 낸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현실 사회 속에서 언어와 이데올로기가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드러난다. 물론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가 생각한 협소한 의미에서 과학적 의식과 대립하는 허위의식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맺는 제반 관계에 대한 인식과 가치평가'라는 광의의 의미를 말한다(cf. V. N. 볼로쉬노프).

프레이리는 브라질 민족성 형성에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민족의 형성과 미래에 관한 논쟁 속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밀어 넣었다. 문화상대주의자 프란츠 보아스(Franz Boas)의 제자이기도 한 프레이리는 사회적인 삶이 지닌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한 연구가 더 큰 주제들을 끌어올 수 있다고 이해한 것이다. 사회적 집단에 관련된 언어가 그 경우였다.

CG&S에 실린 프레이리의 발화들은 당시 브라질의 사회조직에 대한 설명과 브라질 포르투갈어(PB)와 유럽 포르투갈어(PE)사이에 벌어져 있는 경계의 틈새를 관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프레이리는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가부장제인 사회에 관한 설명력을 바탕으로 '대저택'과 '노예숙사'라는 공간과 '대농장주'와 '흑인노예' 사이의 이분법적이 아닌,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서서히 생성되어 온 하나의 민족정체성을 바라본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프레이리는 브라질에서 사용하게 된 포르투갈어를 교양 변이와 대중 변이형 사이에서 일어난 변증법의 결과물로 해석하고 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대저택'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노예숙사'에서 사용된 언어는 서로 차이가 있었을망정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대립적이지 않았다.

> *하지만, 포르투갈어가 '노예숙사'처럼 '규범을 위반하는 환경*[43]*'에 자신을 모두 넘겨준 것은 아니었다. (…) 농장주들과 신부들의 보수적인 검열이 존재했다. (…) 브라질 민족어는 한편으로는 tia*[44]*들의 말이, 다른 한편으로는 신부들의 말이, 이렇게 상충되는 두 가지 노선이 중층적으로 병행한 결과로 탄생했다. (…) 브라질에서는 '대저택'(Casa-grande)을 '노예숙사'(Senzala)와 연결시키면서 유럽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균형 잡힌 대립'이라는 이분법적인 사회적 관계를 생산해 냈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표상되는 새로운 언어표현들을 낳게 한 것이다*(FREYRE 1980, 389-390).

'대농장과 노예숙사'를 관통하는 '균형 잡힌 대립'이라는 표현은 "tia"로 대변되는 민중과 신부 사이의 대립구도를 통해 조명되었다. 혹은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표준이 아닌 변이형과 표준 변이형의 표상 간의 상충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프레이리적 시각을 통해서 볼 때,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갈어 변이형은 기존의 포르투갈어에 지역성이 '추가'되고 '혼합'된 '풍성해진' 성격으로 특색지어진다. 언어의 규범화는 상기에서 상술했던 신부들과 교회를 통해 이 과정에서 표상된다. 교회는

---

43) 의사소통으로서 언어가 가지는 세 가지 요소 중의 하나로 마르크스가 '실제 삶의 언어'라고 불렀던 부분이기도 하다(응구기와 씨옹오 2007, 34). 즉, 노동과정 안에서 사람들이 타인과 맺는 관계들, 음식, 의복, 집 등처럼 삶의 수단이나 부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행위 안에서 그들끼리 성립시키는 필연적인 연결이 존재하는 특정 문화의 공동체적 환경을 가리킨다.

44) 우리말로는 '이모', '고모', '아줌마' 등 에 해당되며 브라질에서 역시 대화맥락에 따라 지칭하는 대상이 바뀔 수 있는 통칭에 해당된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이 'tia'라는 호칭에 해당하는 인물은 표면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듯한 '대저택과 노예숙사'라는 공간의 경계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백인 주인과 가족(혼혈)의 가사과 보육을 책임 짓는 가사도우미에 해당하지만, 때때로는 백인주인의 아내 역할을, 아이들에게 이모의 역할 등 사적인 삶(vida privada)속에서 그 역할의 스펙트럼이 넓게 확장된 계층에 해당된다.

언어의 보존과 전파, 그리고 정식교육기관으로 기능하였다. 대중적 변이형은 tia라는 호칭에서 대변되듯이 일상생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언어사용에 의해 표상되었다.

그 다음 과정에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어의 규범을 수호하는 최전방에 선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가진 사고('bem falar')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 *수도승 '미구엘 두 싸끄라멩뚜 로뻬스 가마'는 예쁘장한 소녀들이 "mandá", "buscá", "comê", "mi espere", "ti faço", "mi deixe", "muler", "coler", "lê pediu", "cadê ele", "vigie", "espie" 같은 표현들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ibid., 389).

프레이리는 브라질 내 사회집단 사이에서 구성되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포르투갈과의 표현방식의 차이를 어휘부를 통해 부각시켰다:

> *어떤 브라질 사람들이, 적어도 북쪽지방의 사람들이 caçamba, canga, dengo, cafuné, lubambo, molambo, caçula, quitute, mandinga, moleque, camundongo, muganga, cafajeste, quibebe, quengo, batuque, banzo, mocambo, bangüê, bozó, mocotó, bunda, zumbi, vatapá, caruru, banzé, jiló, mucama, quindim, catinga, mugunzá, malungo, berimbau, tanga, cachimbo, candomblé 과 같은 말에서 이국적인 느낌을 가지겠는가?* (ibid.)

프레이리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사용할 때, 알려진 세계에 대해 말로 묘사를 할 때, 브라질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언어형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공헌을 했다. 포르투갈어 같지만 포르투갈인들에게 '이국적' 혹은 '일탈'로 보이는 형태들이 브라질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통용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위에서 언급한 어휘들 외에도 깐지두(Candido, 2002)가 '정체성의 느낌'이라고 정의한 것처럼, 이러한 언어형태들에 '민족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동일한 언어체계로 서로 다른 세계(포르투갈과 브라질)를 표상하는 어휘들과 표현들을 사용했다. 브라질 사회 안에서도 계층 간에 상이한 표현들의 유통이 존재했고 그 사용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다:

> *: (...) "catinga"보다 "mau cheiro"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muleque"나 "moleque" 대신에 "garoto"라고 부르기를 선호하는가? "molambo" 대신에 "trapo"라고 말해야하는가? 이 말들은 우리(브라질 사람들)의 경험, 입맛, 느낌과 감성에 맞는, 포르투갈어보다 더 맛깔스러운 표현들이다*(ibid.).

문법적으로 브라질과 포르투갈이라는 이 두 가지의 세계를 표상함에 있어서 브라질 포르투갈어와 유럽 포르투갈어의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통사적 특징은 바로 목적격 대명사의 위치에서 나타난다. 유럽 포르투갈어와 차별되게 브라질 포르투갈어에는 목적격 대명사의 위치는 두 곳(동사의 앞이나 뒤)에서 가능하다. 이 부분은 A Língua Nacional(1921)에서 역시 언급되어 반향을 일으킨 바 있는데 목적격 대명사의 위치와 같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언어학적인 문제로만 보이는) 언어학적 현상이 마치 사회적 관계의 대리자처럼 조명되었다.[45]

브라질 식민사회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현대사회도 내부에 대립과 반목이 존재한다. 그리고 브라질 식민사회에서 이러한 대립과 반목은 '부

45) 프란츠 보아스(Franz Boas)의 문화상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언어상대주의 혹은 그를 넘어선 언어결정주의에 가까운 관점보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가 '인간의 현실적인 의식'인 이상 그것을 구성하는 계기들을 종합화하는 방식의 연구라는 차원에서 주목한다.

리는 것'과 '복종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될 뿐이라는 이분법적인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 두 힘의 한편에는 보통 제국주의적 전통이, 다른 한편에는 반항의 전통이 대립 항목으로 자리 잡는다. 응구기 와 씨옹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국주의 전통이 반항의 전통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문화폭탄'을 일상적으로 가하고 휘두른다. 이 '문화폭탄'은 그들이 자신의 과거를 성취가 없는 볼모지로 보도록 만들고, 그러한 볼모지에서 스스로 거리를 두고 싶어 하게 만든다. 자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것(지배계급의 언어)과 동일시하고 싶어지도록 만든다(응구기와 씨옹이 2007, 13-14). 이런 의미 안에서 프레이리는 브라질이 자신의 역사를 뒤돌아 볼 때, 응구기의 표현대로 '문화폭탄'의 효과로써 애서 망각하고 싶은, 스스로 거리를 두고 싶어 하게 만드는 과거인 노예제도를 '조화로운 대립'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긍정적인 자기 것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훌륭한 전략가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는 1922년 브라질 근대문예주간을 통해 천명된 브라질 모더니즘 정신의 바탕이 된 '식인주의[46]'와 연결된다.

이처럼 프레이리는 브라질에서 사용된 포르투갈어가 새로운 환경과 사회적 관계 안에서 '오염'되기보다는 오히려 풍요로워졌다는 관점을 고수했다. 브라질 사람들의 입에서 포르투갈 식으로 말하는 방식을 기피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에 기인한 언어 형태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프레이리가 '대농장과 노예숙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테제는 브라질의 민족정체성을 이분화된 사회적 관계의 '조화로운 대립'으로 확신하고 그런 문화의 잠재력을 믿는 것에서 요약된다.

프레이리는 브라질 땅에서 이뤄진 인종적 혼혈(mestiçagem)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틀리게만 말하는 말'으로 알려진 브라질의

46) 서구문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문화적인 자기 자본을 '남의 것일지라도 먹어 삼켜' 육신의 것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문화메타포 개념이다.

구어(língua falada)에도 고유한 민족의 고유한 언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한마디로 언어변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가치화 시키고, 그 가치화된 사회를 관통하는 요소로 언어변이의 가치를 부상시킨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앞서 프레이리의 발화를 통해 논거해온 부분과 같이 역사적 과정을 바탕으로 브라질 포르투갈어(PB)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부여에 대한 과정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언어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사회의 발전단계에 대응되는 것이 아닌 언어 자체의 내부적 요인들과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Ⅴ. 맺으면서

앞서 강조했다시피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유럽 포르투갈어에 비교해서 '더 달고', '더 부드럽고' '더 상냥하다'라는 하는 표상은 우리가 연구목적으로 활용한 프레이리의 발화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프레이리와 그의 대표적인 저술 '대저택과 노예숙사'(Casa-grande & Senzala)가 근대 브라질의 지식인 사회에서 "브라질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자아 찾기' 연구의 대표적인 상징이자 출발점 중의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

본 연구의 중심에는 일차적으로 브라질의 민족 정체성 탐구에 있어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로써의 '민족'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었다. "어떻게 개인이 언어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느냐", "어떻게 개인이 자신의 언어를 받아들이는가", "자기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말해지는 것 중에서 무엇을 진실

로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인 셈이다.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단어를 엮어 만드는 것도 아니며 기계부품처럼 조립해서 쓰는 것도 아니다. 언어에는 즉시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상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말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상호 이해가 되도록 하는 언어의 보편성 외에 특정 문화와 그 집단의 정체성은 언어의 보편성 안이 아닌 특정 역사와 함께 한 특정 공동체의 언어로서의 특수성 안에서 전달되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는 세상과의 특수한 관계, 특수한 역사, 특수한 성격과 형태를 가진 인간들의 공동체로써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응구기와 씨옹오 2007, 38-39).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1930년대 주로 저술된 질베르또 프레이리의 저서를 통해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언어, 즉 '브라질 민족어'를 통해 드러난 '발화들'을 성찰함으로써, 그리고 동시에 낭만주의 작가들이 지닌 성찰과의 교차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현재, 질베르또 프레이리가 브라질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핵심적이다. 그는 비록 브라질 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그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적인 시각을 발전시킨 시대에 등장했었지만 한때는 북동부라는 지역성에 국한된 연구로 평가절하되었다가 21세기 들어 그 가치를 새로이 재평가 받고 있다. 국내에서 질베르또 프레이리(Gilberto Freyre)와 '대저택과 노예숙사'(Casa Grande & Senzala)를 다룬 논문은 그 중요성과 무게감에 비해 아직 소수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브라질 연구가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에 비하자면 아직은 미약한 성과이며, 현재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요에 답변할 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에게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상되면서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난무하는 현상이 짙은데, 적어도 학계에서는 특징 시기와 이슈에

따른 사회적 관심에만 편승하는 ‘노마드’적 연구를 지양하고 오히려 그 지역을 좀 더 심층적이면서 무게 중심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지식의 재창출과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연구에 충실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리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것은 역사적 담론의 흐름 아래서 민족 정체성과 관련해서 ‘브라질의 언어가 어떠했고,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관찰되는 것이었다, 향후 과제에는 선행이든 후행이든 그와 상관없이 ‘브라질’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브라질사람의 민족정체성이라는 정신세계까지 망라된,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언어공동체에서 수행하는 언어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브라질 사람들’이란 무엇인지, 브라질 사회의 구조는 어떤지에 관한 과제들 역시 병렬적으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김영철(2008),「질베르투 프레이리 다시 읽기」,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1, pp.131-159.

김하수(2008),『문제로서의 언어2』, 서울: 커뮤니케이션스.

박명규(2009),『국민·인민·시민 -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서울: 소화.

박종일·김은정(2008),「집단정체성 연구에서 근원주의와 구성주의의 검토」, 사회와 이론 통권 제13집, pp.185-212.

이기웅(2008), 마르크스주의와 언어 (I), 저항의 촛불 2호.

이병혁(1986),『언어사회학 서설』, 서울: 까치.

이승용(2007),「브라질 ‘인종적 민주주의’에 대한 재고」, 중남미연구 제25

권2호, pp.179-202.

양철준(2005),「케냐 나이로비 거주 인도계 이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의 언어 사용과 태도에 나타난 종족적, 종교적, 사회적 정체성의 인식, 수행, 교섭과 전승」, 아프리카연구 제18호, pp.53-104.

서경식(2008),『난민과 국민사이』, 서울: 돌베개.

최금좌(1999),「브라질신화 '루조 트로피칼'의 창조자 질베르뚜 프레이리에 대한 80년대 이후의 재해석들이 브라질 사회사상사에 주는 의미」, 중남미연구 제18권, pp.101-123.

JAMSON, F(1972), *The Prison-House of Language,* 윤지관 역(1985),『언어의 감옥』, 서울: 까치.

NGUGI Wa Thiong'o(1986), *Decolonizing the Mind,* 박혜경 역(2007),『마음의 탈식민지화』, 서울: 수밀원.

V. N. Volosinov(1986),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the Language,* 송기한 역(2005),『언어와 이데올로기』, 서울: 푸른 사상.

ABREU, Mirhiane Mendes de(2002), A*o pé da página, a dupla narrativa em José de Alencar,* Tese de doutorado apresentada ao Instituto de Estudos Lingüísticos da Unicamp.

ARAÚJO, Ricardo Benzaquen de(1994), *Guerra e Paz,* Casanos anos 30, Rio de Janeiro: 34o edição.

BERND, Zilá(2007), *Dicionário de Figuras e Mitos Literários das Américas,* Permalink.

BORBA, Lilian do R.(2007), "Língua e Mestiçgem", *Sínteses,* Vol.12, pp.77-86.

CANDIDO, Antonio(1976), "Literatura e sociedade". *Estudos de teoria e história literária.* São Paulo: Companhia Editora Nacional, 5° edição.

_____(2002), "Sentimento de identidade", ln: Folha de S.

Paulo, São Paulo. (2002.4.13)

CÂNDIDO, w. r.(2008), "Casa-Grande e Senzala nos romances de José de Alencar, uma releitura da prosa ficcional alencariana por Gilberto Freyre", XI *Congresso Internacional da ABRALIC*(2008.07.13.-17, São Paulo: USP).

COHEN, Ronaldo(1978), "Problem and Focus in Anthrop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7, p.379 sqq.; in Joshua A. Fishman (ed.) (1989), Language and Ethnicity in Minority Sociolinguistic Perspective, Multilingual Matters, Philadelphia, pp.21-65.

COSTA Lima, L.(1989), *O aguarrás do tempo,* Rio de Janeiro: Rocco.

COUTINHO, Afrânio(org.)(1965), *A polémica Alencar-Nabuco,* Rio de Janeiro: Edições Tempo Brasileiro, Biblioteca de Estudos Literários.

DE LUCA, Tania Regina(1999), *A Revista do Brasil: um diagnóstico para a (N)ação*. São Paulo: Fundação Editora da UNESP.

FREYRE, Gilberto([1933]1980), *Casa Grande & Senzala: Formação da Família Brasileira sob o Regime da Economia Patriarcal.* Rio de Janeiro: Livraria José Olympio Editora.

_____([1933]2003), *Casa Grande & Senzala,* Introdução à história da sociedade patriarcal no Brasil, Pernambuco: Global Editora, 51o edição.

_____([1939]2002), *Açúcar: uma sociologia do doce, com receitas de bolos e doces do nordeste do Brasil,* São Paulo: Companhia das Letras.

_____(1953), *Um Brasileiro em Terras Portuguesas,* Rio de Janeiro: José Olympio.

_____(1955), *Reinterpretando José de Alencar,* Ministério da Educação e Cultura, Departamento da Imprensa Nacional.

Kroskrity. Paul V(2000), Identity.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ogy* 9(1-2), pp.111-114.

LEITE, Dante Moreira([1968]2002), *O Caráter Nacional: história de uma ideologia,* São Paulo: Ed. UNESP.

Liah Greenfeld(1992),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MILLIET, Sérgio (s./d.), *Diário crítico de Sérgio Milliet:* 1940-43, vol.1. São Paulo: Divisão do Arquivo Histórico de São Paulo.

MOTA, Carlos Guilherme da([1977]1990), *Ideologia da cultura brasileira* (1933-1974), São Paulo: Editora Ática, 6o edição.

ORO, Apripedro(2008), *A Latinidade da América Latina-Enfoques Socioantropológicos,* São Paulo: ADERALDO & ROTHSCHILD.

PINTO, Edith Pimentel(1978), *O português do Brasil: textos críticos e teóricos,* 1 - 1820/1920, Fontes para a teoria e a história, Rio de Janeiro: Livros Técnicos e Científicos; São Paulo: Editora da USP.

RIBEIRO, João(1921), *Língua Nacional,* Monteiro Lobato.

SCHLIEBEN-LANGE, Brigitte(1982), "Introduction à la section: Attitudes", ln: Dittmar, Norbert; Schlieben-Lange, Brigitte(orgs), *Die soziolinguistik in romanischsprachigen Landem/La sociolinguistique dans le pays de langue romane,* Tübingen: Nar, pp.219-224.

_____(1993), *História do Falar e História da Lingüística.*

Tradução de Fernando Tarallo et alii, Campinas: Editora da UNICAMP.

“Vídeo de Batman, Robin e Mulher Gato ensina português na Abin” http://comentarios.folha.com.br/perfil?user=62196&skin=folhaonline&done=http%3A//www1.folha.uol.com.br/poder/902554-video-de-batman-robin-e-mulher-gato-ensina-portugues-na-abin.shtml (2011.04.14)

논문투고일자: 2011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자: 2011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6월 23일